

도서관사람들 2 이학건 · 신대범 · 송재술

삼인삼색이라 할 정도로 서로가 생각을 표출하는 방법이 너무나 다르지만 유난히 관심분야가 같아서 서로 잘 통한다는 세 사람...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더 잘 채워줄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하는 그들을 만나보았다.

그들이 이번엔 '도서관에 없는 책'이라는 조금은 과감한 제목으로 책을 출간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세 사람을 만나기 위해 토요일 오후 인사동으로 향하였다.

날씨가 무척 좋았기에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맘이 잠깐 들기도 했지만, 나름대로 개성이 강한 이들을 만난다는 것이 마냥 즐겁기만했다.

주말 오후라 그런지 인사동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로 붐비었다. 제일 먼저 근사한 양복차림으로 이학건씨가 멀리서 모습을 드러냈다. 이어 많은 사람들 틈에서 조금은 마른 듯한 모습의 신대범씨가 보였다. 송재술씨가 좀 늦게 온다는 연락을 받고 우선 앉을 곳을 찾기 위해 발걸음을 옮겼다. 다양각색의 사람들... 꽃들로 화사하게 장식된 거리 풍경을 보며... 봄 내음을 물씬 느낄 수 있는 싱그러운 주말 오후였다. 우리는 학교재 사이 골목으로 접어들어 '책읽는사회만들기국민운동'이 자주 모임을 갖는 동루골 바로 앞의 '시천주'라는 찻집에 자리를 잡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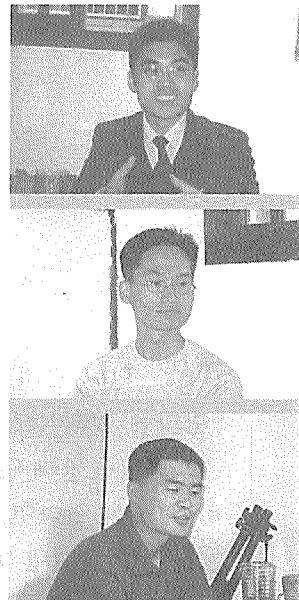
갑자기 날씨가 더워진 탓인지, 모두 냉차를 주문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 가운데 편집 등 많은 일을 도왔다는 정수현(경기도사이버중앙도서관 사서씨와 인터뷰 후 M.T를 떠나야 한다며 큰 배낭과 사진기를 맨 채 가쁜 숨을 내쉬며 송재술씨가 들어섰다.

서로가 바쁜 탓인지, 도서관에 관한 조금은 엉뚱한 자료를 찾아다니느라 그런 것인지 서로 통 만나질 못했다는 그들은 오랜만에 자리를 마련해줘서 오히려 고맙다는 말을 전했다.

때마침 안치환의 노래가 우리의 공간에 사뭇히 내려앉아 편안한 분위기에서 도서관에 대한 열정과 패기가 넘치는 젊은이 셋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다.

'도서관에 없는 책'을 만든 계기는? 책제목이 독특하다.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이학건 : 1999년 12월 말 준비를 시작해 2000년 1월에 '몽도리'가 나왔다. 처음에는 책으로 묶을 생각을 안 했는데, 10호까지 진행되면서 더 늦기 전에 정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새로운 분야를 개척해나가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했고, 재미있고 신나는 일 없을까? 라는 단순한 생각으로 시작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몽도리합본호' 등 특색 없이 제목을 정하려 했지만, 다른 이름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던 차에 '도서관에 없어도 되는 책'으로 생각을 바꾸었는



이학건
1972년생, 문헌정보학 전공
현재 국토연구원 자료실 근무

신대범
1974년 출생, 문헌정보학 전공
현재 한국교파서연구재단
교파서정보관 근무

송재술
1974년 출생, 문헌정보학 전공
현재 (주)이씨오
DL 교육지원팀 근무

데, 우연히 한 친구가 ‘도서관에 없어도 되는 책’ 보다는 ‘도서관에 없는 책’이 더 좋겠다고 제안해주었다.

‘도서관에 없는 책’이라는 공간이 도서관의 이상을 꿈꾸며, 도서관의 희망을 노래하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상이나 희망만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어떤 일들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혹시 계획하고 있는 일이 있다면?

이학건 : 처음에 시작할 때는 도서관의 희안한 얘기들을 모으려고 한 건 아니었다. 단지 문헌정보학과 학생들이나 사서들이 ‘지금의 도서관이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자유롭게 이야기 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길 바랐다. 그래서 처음에는 모두 익명으로 꾸려갔었다. 그러다보면 새로운 것이 나올 수 있고, 그렇게 될 줄 알았다. 그러나 기대대로 되지는 못했던 것 같다. 처음에는 잡글이 주를 이루다가 대범씨가 먼저 소재의 고갈을 막기 위해 하나씩하나씩 도서관의 희안한 얘기들을 끄집어 냈다. 그러다보니 초점이 그렇게 맞추어져버렸다. 생각한 만큼, 언젠가는 구체화 될 거라고 생각한다. 이상을 생각할 때 중요한 것은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과 이상을 꿈꾼다라는 것은 동일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준비가 되어 있다면, 그것을 구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회가 왔을 때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준비되어 있는 사서"가 되어야 한다.

‘내가 도서관장이 된다면 제일 먼저 무얼 할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도서관장이 되었을 때 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나 같은 경우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다. 일단, 전 직원의 출근시간을 1시간씩 앞당길 것이다. 그래서 신착도서가 도착했다는 전단지(지하철역이나 버스정류장에서 배포할 것이다. 또, 수서할때부터 이용자가 책을 빌려보는 모습까지를 모두 밀랍으로 만들어 디오라마(일종의 모형세트)를 보여주고 싶다.

참여를 유도하려고 익명성을 도입했지만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했다고 했는데 우리 도서관계가 익명성도 통하지 않는 집단이라면, 좀 문제가 있는 집단이라고 생각했을 것도 같은데, 절망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는가?

송재술 : 물론, 참여가 많지 않은 것에 실망하였고, 도서관이 현 상황보다는 더

나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몽도리’ 같은 공간들을 통해 도서관이 도서관 사람들에게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계기는 된 것 같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좀 더 발전된 논의로 끌어갈 수 있다는 생각은 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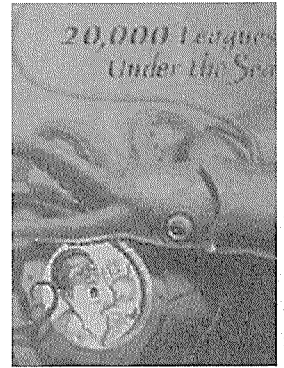
브라질 꾸리찌바시의 ‘지혜의 등대’를 우리나라에서 본다면 마냥 부럽기만 할 따름이며, ‘훔치고 싶은 아이디어’라고 책에 적고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적용 불가능한 모델이라고 생각하는가? 만약 적용 가능한 모델로 만들려면 어떤 일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이학건 : 행정체계가나 정치체계를 송두리째 바꿀 수 없으니까,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사회전반의 성숙이라고 생각한다. 아직 우리사회는 도서관을 욕구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한다. 엘리트계층 사람들의 의식이 변하지는 않는다는 것이 문제이다. 꾸리찌바시 같은 경우는 시민을 존중하는 정치가, 행정가들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한국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꾸리찌바시 같은 모델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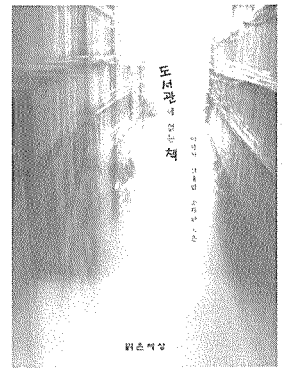
송재술 : 상상력의 부족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어떤 도서관은 책을 놓을 자리가 없어 벽걸이, 텔레비전 등을 사기도 한다고 한다. 그런걸보면 예산이라는 것에 대해 경직되어 있는 것 같다. 돈을 가지고 도서관에서 재미있게 쓸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좋은 방법이 있을 수도 있는데, 현재는 그러지 못하니깐 그것이 문제이다.

이번에 출간한 책에 도서관에서의 교과서에 대해 서술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과 관련하여 교과서에서 도서관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왜곡 됐다고 생각하는지...

신대범 : 솔직히 교과서에서는 도서관적인 측면보다는 정보활용 측면이 강하다. 즉, 컴퓨터, 인터넷에 더 많이 치중되었다. 사서입장에서 쓴 교과서가 나와야한다고 생각한다. 사서가 교과서 내용에 대해 어느 정도 검토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참여하지 못한 것은 우리의 관심부족, 의식부족, 태도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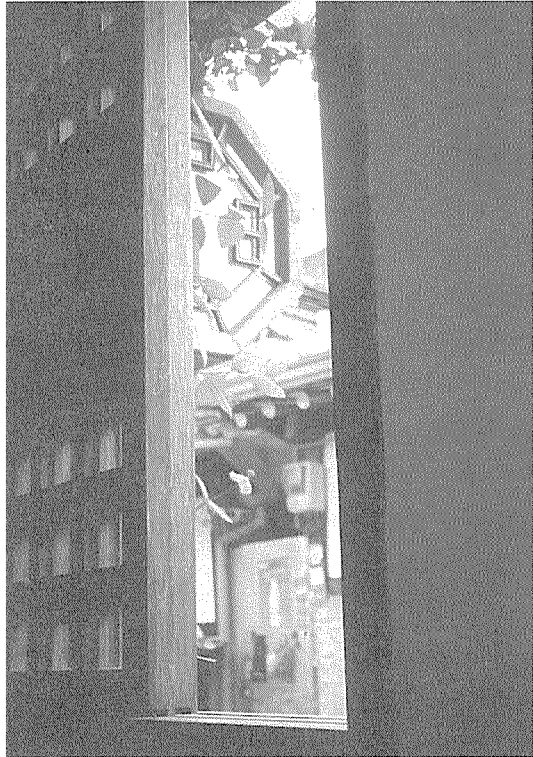


통권 1호(2000.01)-몽돌이 창간호
창간사 | 감히...도서관의 희망을 말한다
영화소개 | 러브레터
잡문 | 2000년도 표기법을 제안한다
잡문 | 사서, 그리고 이용자의 Informator
Skill
잡문 | 우리 동네 뺑뺑의 독서 캠페인...??
연재소설 | Time Librarian(1)



이학건 · 신대범 · 송재술, 2002. 밝은세상

정보현상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비판적으로 정보매체를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물론, 드라마에서 사서가 어찌 묘사되었나? 영화에서 도서관이 어느 장면에 나왔는가 등을 지켜보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이에 대한 의견은?



인터뷰를 진행하는 동안 창 밖은 화사한 햇살로 빛났다. 우리들의 희망도 함께 환하게 밝아 오기를...

송재술 : 영화나 드라마에서 그려지는 것은 그것을 보는 사람의 관점이다.

이학전 : 미디어나 매체에서 도서관이 잘못 그려지고 있는 것에 대해 처음에는 신경을 쓰지 않았다. 그렇게 비추어 지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확대 재생산이 되는 게 문제라고 생각한다. 계속 확대 재생산되면, '도서관은 당연히 이렇게 되어 한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확대 재생산을 막으려면 도서관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신대범 : 이런 문제들은 이미지 메이킹과 관계가 되는 것 같다. 교육과정의 이미지 메이킹과 결부되는 것 같기도 하다. 예를 들어 매스미디어를 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장장이를 생각할 때 불구덩이에서 쇠를 두드리는 모습만 떠올린다. 그러나 실제와는 다르다. 사서의 경우에도 전화로 수다떠는 그런 모습만 강조된다.

이런 왜곡되는 현상들에 대해 매체를 감시하고 모니터링 하는 하나의 그룹이 형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서의 이미지 개선에 노력을 해야한다.

사서라는 그룹은 편차가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만큼 가능성에 대한 기대도 크다. 끝으로 우리의 역사를 돌이켜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하지 않겠느냐? 라는 동지 의식을 가지고 하고 싶은 말 한마디.

송재술 : 예전에는 도서관이 발전하지 못하는 것이 돈이 없고, 사람이 없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라고 생각했다.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이용자 입장에서 도서관을 바라보니까 참 많이 다르다. 얼마 전 '도서관주간' 이라하여 도서관에 갔다. 그런데 도서관주간에 대한 홍보가 아무것도 없었다. 도서관주간 준비를 지역주민과 같이 해서 지역민의 행사로 만들었다면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을 했다. 지금

까지 해오지 못했던, 좀 더 다양한 활동들을 상상력을 좀 높여 재미있고 알찬 도서관이 되도록 꾸려갔으면 좋겠다.

신대범 : 자신의 일에 충실하면서 사서들이 서로 단합하고 서로 도와줄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하나의 공간을 형성하고 체계적으로 바꾸어나간다면 좋겠다.

이학건 : 도서관의 방향은 커뮤니티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예전부터 하나의 커뮤니티 속에서 살았고, 그런 커뮤니티를 재구성하는데 도서관이 중심 역할을 담당해야 하고 사서 역시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난 늘 마음속으로 '바보사서'가 되지 말아야지 하는 생각을 한다. 문헌정보학지식이 부족해도 자신의 임무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똑똑한 사서이다. 자기가 서 있는 위치에서 정말 잘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짚어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동체와 더불어 하나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바보 사서가 되지 말자"
 커뮤니티의 중심은 도서관...
 도서관을 이끌어 가는 사서...
 사서는 바보가 돼서는 안된다."

- 대담 : 이용훈(기획부장)
- 기록·정리 : 심효정

회 원 가 입 안 내

회원가입을 원하시면 협회 사무국으로 연락주십시오.

회원 가입신청서와 함께 자세한 안내를 드립니다.

전화 : 02-535-4868, 전송 : 02-535-5616, <http://www.korla.or.kr>

회원구분		년 회 비	입 회 기 준
단체회원	1급	280,000원	특별시, 광역시, 도청소재지의 국공립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연구기관부설도서관, 금융기관 및 기업체부설도서관, 중앙부처부설도서관, 군기관부설도서관, 기타 주요도서관
	2급	180,000원	시소재지의 공립공공도서관, 전문대학도서관, 관공서 및 사회단체부설도서관, 군기관부설도서관, 기타 주요도서관
	3급	60,000원	초·중·고등학교도서관(실), 읍면소재 공립공공도서관
개인회원	일반	20,000원	사서자격증 또는 사서교사자격증을 소지한 분
	평생	300,000원	사서자격증 또는 사서교사자격증을 소지한 분으로 1회 납부로 평생동안 회원 자격을 취득